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성경: 뵤전 5:1-3, 요 10:11, 11:25, 행 20:28, 눅 15:4-6, 8-9, 18-24, 32

- 뵤전 5:1-3**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11: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 눅 15:4-6**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 8-9**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 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 18-24**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 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 32**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I. 그리스도는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사람들을 목양하고 계시며,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목양이 없으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은 효과적일 수 없다-히 13:20-21, 요 21:15-17.

II. 베드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 무리를 목양하라고 장로들에게 당부했다-뵤전 5:1-3.

- A. '하나님을 따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 B.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나 이익이나 목적이나 기질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 C.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롬 9:15-16, 11:22, 33, 엡 2:7, 고전 1:9, 고후 1:12.
- D.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요 1:12-13, 3:15, 뵤후 1:4.
 1. 우리는 원천과 샘과 강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신성한 생명의 총체가 되고 심지어 신성한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한다-요 4:14, 롬 8:6, 10-11.
 2.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요일 4:8, 1:5, 2:29, 뵤전 1:15-16.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자아와 함께 자아의 기질과 특이함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요 1:18, 히 1:3, 2:10, 롬 8:29.
 4.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따라 양 무리를 목양하시는 하

나님의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엡 4:16, 계 21:2.

5.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III.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요 10:11, 11:25, 고후 1:9.

- A. 요한복음 10장은 목양에 관한 장이고, 요한복음 11장은 목양이 반드시 부활 생명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B. 우리가 천연적이어서 타고난 조망과 철학과 논리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 C.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살지 않고 신성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갈 2:20.
- D.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요 11:25, 21:15-17.

IV.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성도들을 함께 모아야 한다-요 10:16, 눅 12:32, 행 20:28, 벰전 5:2-3, 참조 사 40:11.

- A. 합당한 목양은 성도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다.
- B.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께서는 목양에 관한 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먹이다’, ‘목양하다’, ‘양 떼’ 이다. 우리 모두는 먹고 목양하고 한 무리로 모으는 것을 배워야 한다.
- C. 그리스도께서 풀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양들과 함께 모여 그분의 한 유기적인 몸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엡 4:16, 계 21:2.
- D. 모든 교회들은 함께 섞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함께 모이는가를 배워야 한다. 함께 모이는 분위기에서 우리는 주님께 의해 정복되고, 확신을 얻고, 양육되고, 분발될 것이다.

V.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에 따라 그리고 아들의 찾고 발견하고 목양하는 영에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해야 한다-눅 15:4-24, 32.

- A.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으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단계들을 따라야 한다-15:4-6, 8-9, 18-24, 32.
- B. 우리의 타고난 경향은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기보다는 비평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 1. 우리가 누군가를 비평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돌볼 위치를 잃어버린다.
 - 2. 우리의 타고난 경향은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소중히 품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따라 사람들을 규제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 C. 우리는 제자 되는 것을 통해 관념을 바꾸어, 신성한 관념, 즉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의 목양하는 영에 따른 관념을 가져야 한다.
- D. 우리의 목양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타락한 인류는 사탄과 결합되어 사탄의 체계 안에 있는 사탄의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요 3:16.
- E. 우리는 그분의 신성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과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찾고 찾아 목양하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되어야 한다.
- F.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부흥은 소수의 영적 거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얻으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목자들이 된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에 의한 것이다.” (활력 그룹, 영문판 40쪽).